

]



김영식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관계자들과 하트를 보이고 있다.

[시정일보 주현태 기자]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식은 지난달 11월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11월도 열린혁신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제1회 열린혁신 경진대회에서는 처음으로 모집 공고를 통해 모집한 구민평가단 1인이 참석해 직원이 발표 사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구민평가단의 선택을 많이 받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참가한 개팀 가운데 안전감사팀의 장성호 주무관이 발표한 '전직원 견문보고제 시행'이 최우수상, 문화복지사업팀의 최경철 대리가 발표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따포구시설관리 공단이 함께합니다'가 우수상, 공공시설안전팀의 이경한주임이 발표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 1태에서 1태로 구성된 구민평가단 중 최고령자인 백학주 최고령씨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에 감사하며 2직원들의 아이디어로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점과 구민들로 해금 직원 사례의 순위를 결정하게 한 점 등은 높게 평가한다3고 말했다4

특히 공단 김영식 이사장은 5 6년도 총 77건 제안 7건 8건 9건의 발굴된 직원 작은 아이디어를 잘 발전시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 이라며 5 6년도에도 더 수준 높은 사례 발굴 및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1

앞으로 공단은 올해 제1회는 대회에는 구민평가단의 참여인원을 더 증원해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단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2

저작권자 © 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현태 기자